

< 중국 출장결과 보고 >

**출장명 : 중국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실태 및 대 한국 수출 현황
파악을 위한 출장**

1. 출장 목적

- 주요 원예농산물의 중국 내 생산 및 유통(가공 포함) 현황과 국내 수출 동향 조사 및 중국 내 수급 동향 모니터링 구축을 통해 국내 품목 관측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수급대책 마련에 정보 제공
- **(딸기)** 최근 중국산 냉동딸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공용 딸기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중국산 냉동딸기 생산 및 유통 동향(생산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냉동딸기 제조원가 등)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냉동딸기 증가 가능 시를 대비하여 가공업체 현지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양파)** 2026년산 양파 국내 수확기를 앞두고 중국 내 생산 및 대 한국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 파악, 특히 국내 양파 가격의 하락에 따른 중국 신선 양파의 민간 수입 상황 파악이 올해 국내 수급 전망 및 정부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김치)** 중국 정부의 김치 수출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점점 강화가 국내 김치 수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 기관 면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파악하고, 국내 배추 수급 관리에 반영 가능한 해외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모색
- **(배추)** 할당관세 종료 이후에도 중국산 배추 수입이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지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수출용 배추 공급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 파악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1) 출장기간: 2026년 4월 20~23일, 3박 4일간
- 2) 출 장 자

3) 출장지역: 중국 북경, 청도

부 서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농업관측센터	최 선 우	중국 (북경, 청도)	2026. 4. 20.(월) ~ 4. 23.(목) (총 3박 4일, 여비 3박 4일 산정)
	윤 성 욱		

3. 출장일정

일 시	장 소		방문 기관	수행 업무
4월 20일(월)	인천-중국(북경)		○ 인천(ICN) 08:15 → 북경(PEK) 09:40 [KE0855]	
	중국 (북경)	오후 (13~17)	○ 북경 신발지도매시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현지 원예농산물 시장 및 유통 구조 파악 - 현지 주산지 및 재배 특성 - 인건비, 원료비 등 비용 구조 ○ 미국-이란 사태 이후 중국 내 주요 원예농산물 생산 전망 - 러시아 원유 기반 비닐 및 비료 조달 가능성 - 해당 원료 국내 조달 가능성
4월 21일(화)	중국 (북경)	오전 (09~12)	○ 대형 소매유통업체 가격 및 거래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치 및 철암체소 전열 구조 파악 ○ 가격대 및 제품 구성 조사 ○ 제품 특성 및 현지화 수준 조사 ○ 유통 및 브랜드 전략 조사
		오후 (13~18)	○ aT북경지사 및 농무관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입 동향 파악 - 중국양과 민간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 논의 - 중국 정부의 농식품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관련 질의 - 중국 냉동딸기 생산 및 유통 동향 파악

4월 22일(수)	중국 (청도)	오전 (10~12)	○ 북경(PEK) 9:50 → 청도(TAO) 11:20 [CA1525]	
		오후 (13~15)	○ 양파 대 한국 수출업체 방문 및 수출현황 파악	○ 대 한국 수출 구조 및 물량 조사 ○ 가격 경쟁력 구조 파악 - 생산비, 물류비, FOB/CIF 등 - 수출 전략 및 거래 방식 - 정책 및 규제 대응
		오후 (16~18)	○ aT청도지사 업무협의회	○ 청도지역 수출 구조 및 특징 파악 - 대 한국 농산물 주요 품목 동향 - 주요 수출기업 유형 - OEM 생산 여부 - 유통 구조 및 향후 전망
4월 23일(목)	중국 (청도)	오전 (09~12)	○ 청도 김치 가공업체 방문 및 유통실태 파악	○ 유통 구조 및 판매 채널 조사 - 수입·통관 규제 및 이슈 - 원재료 조달 구조 - 가격 및 수익 구조 ○ 중국 수출 보조금 조사 - 수출 보조금 규모 및 규제 이후 동향 ○ 미국이란 사태 이후 중국 배추 및 김치 생산 전망
		오후 (14~15)	○ 냉동딸기 가공업체 방문 및 회의	○ 원료 조달 구조 조사 - 딸기 원산지 및 수급 안정성 ○ 가공 방식 및 제품 유형 - 냉동 방식 비교 - 가공 형태 및 품질 규격 ○ 주요 수출 시장 및 판로 조사 ○ 가격 구조 및 경쟁력 조사
	중국(청도)-인천		○ 청도(TAO) 18:30 → 인천(ICN) 20:45 [OZ6708]	

5. 출장 결과

중국 농산물 생산 개황

□ 생산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예농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임. 최근 중국 정부의 '식량 안보'와 '농업 강국' 전략에 따라 곡물뿐만 아니라 원예작물의 품질 제고와 생산 효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채소 생산량: 2024년 기준 약 8억 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세계 전체 채소 생산량의 약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과일 생산량: 2024년 약 3억 2,000만 톤을 상회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이사항: 단순 양적 성장을 넘어 스마트 농업 도입, 고부가가치 품종 전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물류 체계(Cold-Chain) 확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
- 중국의 엽근 및 양념채소의 경우 지역별로 시기가 구분되어 있어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함. 최근에는 시설 하우스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사과: 산시성과 산둥성이 주산지로 생산량은 4,800만 톤 수준 (2024년)
 - 시트러스: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품목으로 연간 6,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양파: 윈난성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는 패턴
 - 배추 등 엽채: 산둥성이 대부분 재배 적지로 추울때는 터널이나 시설 하우스를 활용하고 봄철에는 노지 재배

□ 농업 정책 동향 (원예 농산물)

- 중국의 원예농산물 농업정책은 식량작물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없는 편임. 식량작물의 경우 연도별 목표 생산량과 달성 수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공개하는 반면, 채소 및 과일의 경우 농가와 산지유통상인에게

일임하는 구조임. 다만 중국 정부에서도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원예 종자 개발, IT기술 적극적 접목, 화학 비료의 과다 투입 방지,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신파디 도매시장(北京新发地农产品批发市场)

□ 신파디(Xinfadi Market) 도매시장 개황

- 베이징시 평타이구에 위치한 신파디 시장은 1988년 설립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1985년 중국 정부의 농산물 가격 자유화 조치 이후, 베이징 인근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던 노점들이 비대해지면서 교통 체증과 위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평타이구 신파디 마을 주민 15명이 장위시(張玉璽)를 중심으로 초기 자본 15만 위안을 투입하여 울타리를 치고 시장을 개설한 것이 시초임.
- 신파디의 성장은 중국의 도시화 및 경제 성장 궤적과 일치함. 초기 일부 품목에 대해 신파디 마을에서 출발한 도매시장은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성장
 - 면적 확장: 초기 1헥타르(약 3천 평)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112헥타르(약 34만 평)에 달하며, 창고 등 서비스 구역을 포함하면 그 범위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이커머스(징둥, 허마센성 등) 시장이 부상하면서 신파디 도매시장 거래규모 자체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수록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음.
 - 도매상들은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앱 플랫폼 구축, 틱톡 라이브 판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 경로

- 신파디는 2차 도매시장으로서 베이징 채소·과일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유통경로 중의 하나임.
 - 취급 농산물: 채소, 과일이 주력이며 육류(소, 양, 돼지), 수산물, 곡물, 조미료까지 취급하는 종합 유통 허브
 - 시장 플레이어 구조
 - * 대규모 산지유통인: 신파디의 핵심 특징임. 특정 품목의 유통을 독점하 다시피 하는 초대형 도매상임. 이들은 산지 계약 재배부터 물류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음.
 - * 중소 도매인: 대규모 산지유통인들로부터 물건을 떼어오거나 소규모 산지에서 물량을 확보
 - * 구매자: 베이징 내 재래시장 상인, 슈퍼마켓 체인, 대형 식당, 정부 기관 급식소 등이 포함
- 한국의 도매시장과 가장 큰 차이는 수의계약 중심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대형 도매상들의 가격 결정권이 강함을 의미
 - 한국의 경우 대표 가격이 대부분 가락동 도매시장 상품 가격이지만, 중국의 경우 대표가격의 개념이 없으며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구조임. 다만, 신파디 도매시장에 형성되는 각 도매상 가격의 평균이 북부지역 농산물 기준점이 됨.

<한국과 중국의 도매시장 거래방식 차이>

비교	한국	중국
거래제도	경매 중심	협의 매매(수의계약) 일부 품목(돼지, 수입과일, 화훼)
산지조직	농협, 농업법인	산지수집상 중심
시장정보	모두 공개	일부 공개, 대부분 비공개
콜드체인	일부 적용	거의 없음. 감모 높음
중도매인	중도매인 다수	산지수집상이 도매상이자 중도매인

자료: 저자 작성

□ 최근 수급 동향

- (엽근채류) 배추와 무는 중국 내에서 산지 전환을 통해 연중 공급되는 대표적인 채소류
 - 배추는 산동·하남 등 평지 산지와 여름철 허베이 고랭지 산지에서 공급
 - 무는 노지와 시설재배가 병행되며, 한국 무와 다르게 주류 품종은 맵지 않고 단맛이 있어 생식·조리·절임 등에 활용

<배추·무 유통 동향>

구분	배추	무
주요 산지	산동, 하남, 장자커우 등	사천, 강소성 등
재배·출하	지역을 달리하며 연중 공급. 여름철에는 장자커우 등 고랭지지역에서 대부분 생산	노지재배와 시설재배가 병행되며, 계절별 산지 전환을 통해 공급
가격	근(500g) 당 0.4위안 수준	근(500g) 당 0.6~0.9위안 수준
품종	한국계 노란 속 배추(황심), 김치용으로 주로 생산	생식, 무침, 만두소, 국거리, 절임 등 다용도로 사용. 매운맛은 적고 단맛이 있음.
유통처	김치공장, 마트 등	일반 소비, 식자재, 절임 가공 등
특징	여름철 고온, 소나기, 우박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큼	시설재배는 난방보다는 덮개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난방 시 생산비 부담이 큼

- (양념채소) 양파와 마늘은 산지별 출하기시와 저장 가능성에 따라 유통 구조가 다름.
 - 양파는 운남, 하남, 산동, 감숙, 내몽고 등으로 산지가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즉시 유통을 위한 출하와 저장용이 구분
 - 마늘은 수확 직후 수분이 많아 건조·숙성 과정이 중요하며, 산지와 건조 상태에 따라 품질 및 가격 차이 발생

<양파·마늘 유통 동향>

구분	양파	마늘
주요 산지	운남, 하남, 산둥, 감숙, 내몽고 등	운남, 하남 등
산지 전환	운남→하남→산둥→감숙·내몽고 등으로 시기별 공급지 이동	남방 지역은 빠르면 1월경 수확. 산지별 출하 시기 차이 존재
가격	근(500g) 당 0.8위안 수준. 전년도 시세 하락엔 0.65위안 수준	고정된 가격 없이 하루중에도 계속 변동
저장	즉시 유통용과 저장용 품종 구분. 감숙·내몽고 등 저장용 양파는 9월 창고 입고 후 겨울철 공급	수확 직후 수분이 많아 건조·숙성 과정 필요. 창고 보관 후 유통
품질 특징	산둥·안휘산은 식감이 좋고, 감숙산은 외관·크기·상품성이 좋음	수확 직후에는 수분이 많아 품질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건조 후 상품성 향상
재고 처리	작년 재고가 많을 경우 건조 양파 등 가공용으로 처리	저장을 통해 물량 처리

- (기타) 생강은 산둥에서 저장 및 출하를 연중 안정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라 소폭 변동. 고추는 지역별 기후 조건을 활용해 노지와 시설을 통해 연중 생산.

신파디 도매시장 입구



유통 상인 인터뷰



조지강 부사장 면담



기념 사진 촬영



도매시장 판매되는 마늘



마늘 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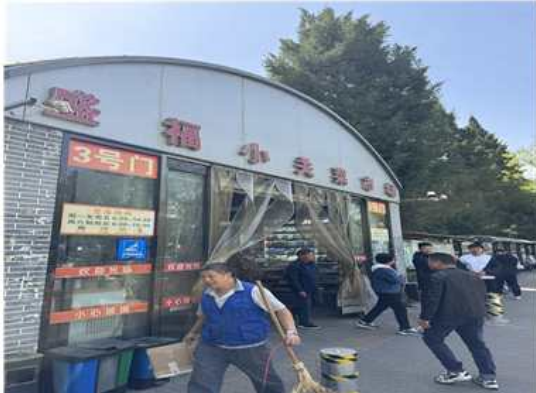


소매 유통 동향

□ 재래시장

- 도심 생활권 기반 소매형 농산물 시장(성포 소채 시장) 방문
 - 성포 소채 시장은 베이징 시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소·과일·육류·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도심형 재래시장으로 주민 생활권 소매 유통 기능 수행
 - 시장 내 채소류는 산지·도매시장 등을 통해 반입된 후 소포장 또는 낱개 단위로 판매되며, 배추·무·양파·마늘 등 기본 채소류 및 계절 농산물 취급
 - 최근 농산물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도심형 재래시장은 신선도 확인, 소량 구매, 즉시 구매 측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수요를 유지
- 실제로 딸기, 블루베리 등 과채 및 과일류를 구매하여 맛을 보았으며 당도 및 식감이 한국산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딸기의 경우 시설하우스 규모나 수준이 한국산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도가 높았으며 가격은 한국산 대비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
 - 타 과채류 오이, 호박 등도 품질이 양호하였으며, 가격은 한국산 대비 대부분 30~50% 수준이었음.
 - 딸기 품종은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잘 판매되지 않는 백딸기 품종이 중국에서는 소매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었음. 당도는 한국의 3월 딸기와 비슷하였음.

성푸 소채 시장 입구



시장 견학



중국 품종 딸기



오이



장희 품종 딸기



백딸기



□ 대형 유통업체

○ 중국의 유통구조의 현대화·디지털 전환

- (콜드체인 확대) 2023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는 5,1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 신선식품이 콜드체인 물동량의 90%를 차지하나, 아직 선진국 대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이커머스) 핵심 대안 유통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2023년 중국 과채류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35% 급증했고, 온라인 플랫폼이 전체 과채 판매의 25%(2015년, 5%)를 차지

※ 중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종류

- * 허마센싱(盒馬鮮生): 2016년 알리바바가 창업하였으며, 신유통 이론의 실험장으로 시작.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창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큰 특징. 3km내 30분 배달,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동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임(2024년 기준 매장 개수 430개)
- * 핀둬둬(拼多多): 중국 최대 농산물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으로 도시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직접 공급 USDA. C2M(소비자→제조자) 모델로 중간 유통단계 축소
- * 징둥(JD.com): 콜드체인 물류에 자체 투자, 도시 신선식품 즉시 배달에 강점
- * 메이완(美團): 1시간 이내 배달 서비스로 도시 소비자 공략
- * 더우인(抖音/TikTok): 라이브커머스로 산지 농가가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채널로 성장

허마선생 입구



허마선생 견학



딸기 판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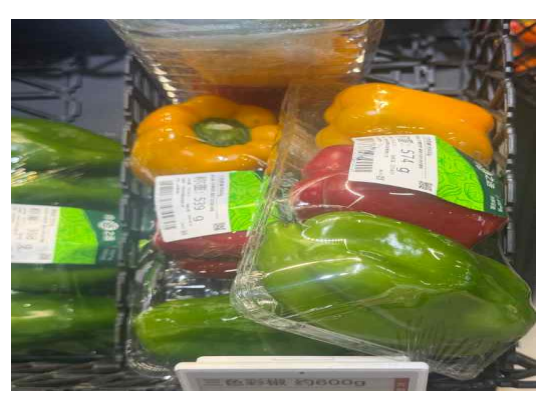
임채소류 코너



배추



파프리카



컵과일 판매



당근



aT북경지사, 농무관 업무협의회

- aT북경지사, 농무관 면담결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에는 단감 품목에 대해 수출육성 계획을 수립중임.
 -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비가 낮고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음
 - 또한 최근 한국인이 중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품종이 중국으로 진출하였음.
 - 한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프리미엄급의 품질 경쟁력이 높은 과일 등을 선별하고 고소득층을 위한 포지셔닝이 필요한 상황임.
- 농업관측을 위한 중국 산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청도지사와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중국 농업 정책 동향 파악은 북경지사와 협조하기로 하였음.
 - 중국의 농업정책은 매년 1회 발표하는데 대부분 식량자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다만 최근 들어 종자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함.

KREI 중국 사무소 방문



aT 북경지사, 농무관 업무협의회



- 중국의 수급 및 가격 결정구조를 보면, 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방식 보다는 직접계약(수의매매) 방식이 지배적이며 시장에서 대부분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임.
 - 도매시장 완성도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한국, 중국 순임. 중국은 여전히 도매시장 거래 제도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원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상으로 원물이 이동하게되며, 중국과 한국, 일본이 거의 비슷함. 다만 데이터 개방의 경우 중국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중국농업농촌부에서 가격을 공개하나 정확도가 낮음.
 - 중국의 도매시장 가격은 가격 도매상인으로부터 수집한 가격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도 측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대비 낮음.
 - 중국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과거에 비해 경유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이커머스 등이 활성화 되면서 도매시장 역할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입 보조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냉동과일, 채소나 김치 등을 수출할 경우 세금을 일부 감면해줌으로서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강화됨. 또한 일부 업체의 경우 투입재료를 높여 세금 적용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정책으로 채소류는 비축이나 저장을 하지 않고 돼지고기와 식량 작물은 일부 저장하고 있음.
 - 채소류와 과일류 등은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수급정책을 할 이유가 없음. 또한 식량작물 대비 중요도가 낮아 특별한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수입보장보험은 일부 적용하여 가격이 크게 낮을 경우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사회과학원 단체 사진



사회과학원 업무협의회



aT청도지사 업무협의회

- aT청도지사는 2006년 12월부터 운영하였으며, 파견직 2명과 현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 전역 채소류 및 특작류 수급정보 파악을 통해서 각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TRQ의 효과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입찰에 참여한 중국내 농산물 수출 업체를 조사하고,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중국 내 김치, 양파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업체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KREI 해외정보 수집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농업관측센터와 국내 수급상황 및 중국내 생산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협의하였음.
- 특히, 양파, 배추, 김치의 경우 국내 수급 불안시 해외 모니터 의존도가 높아 실시간 수급정보 수집에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

aT청도지사 업무협의회



기념사진 촬영



양파 수출업체

- 본 업체는 한국에 당근, 사과, 양파를 수출하는 업체로 산지에서 원물을 확보하여 저장 및 선별하고 수출함.
 - 2025년 중국 양파 작황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매우 좋았음.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년산(간수성)임. 저장량도 각 지역에 전년 대비 많은 상황임.
 - 현재 4월 기준 원난성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음. 외관상으로는 산동성지역이 좋으나 맛은 원난성이 좋음. 원난성
 - 주로 한국 바이어들은 감숙성, 산동성 지역을 선호함. 맛과 크기가 양호한 편인 것이 원임임.
 - 한국에서 선호하는 사이즈는 약 11~12cm 수준을 선호하며 적색 양파가 40%, 황생이 60% 수준임. 한국은 김치 가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황생 양파를 선호함.
- 대한국 양파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290\$/톤)임.
 - 원난성 작황은 전년 대비 부진(-20% 수준)한 상황이며, 산동성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움.
- 내륙 운송은 대부분 육로로 하며 콜드체인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원난성에서 선별하여 포장 및 수출을 진행하면 10일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양파에서는 큰 감도가 일어나는 기간이 아님. 최근에는 냉장시설을 확보하면서 저온 저장고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감모율을 낮추기 위해 건조 및 석회 처리(저장 시) 등의 방법을 사용함. 저장된 양파 산동 기준 약 5개월 정도 저장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신선 양파의 경우 퇴세가 없기 때문에 한국 오더에 따라 수출량이 달라지며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보고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 전년과 같이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 중국내 가격과 비교한 후 비교적 손해가 낮은 루트로 판매하고 있음.
 - 한국은 도매시장 정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급상황 파악 가능함.

<중국의 시기, 지역별 양파 출하>

산 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 징
윈난(云南)													단일조·적황색·저장성↓
쓰촨(四川)													달콤하고 아삭·수출용
하남(河南)													중일조 황색·공백기 연결
복건(福建)													자파·황파·단일조 단맛
산둥(山東)													황색 중일조·수출량 1 위
내몽골(内蒙古)													적색·매운맛 강·저장 ↑
길림(吉林)													소형 고품질·러시아수출
신장(新疆)													백파·단맛·고품질
감숙(甘肅)													최대산지·연중공급·저장 ↑↑
범례	<div><div>■ 서남권(윈난·쓰촨)</div><div>■ 중원권(하남·복건)</div><div>■ 산둥권</div><div>■ 동북·내몽골권</div><div>■ 신장</div><div>■ 감숙(최대산지)</div><div>□ 비출하 시기</div></div>												

자료: 저자 작성

<관련 사진>

현지 양파업체 면담



양파 선별 작업장



수출 규격 측정



수출 작업장



김치수출업체(동인김치)

- 본 업체는 2008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한국으로 김치 수출량은 약 2~3만 톤이며, 매년 수출량은 일정한 편임. 중국 내 규모가 큰 업체는 한국으로 수출량이 일정하고, 소규모 업체에서 수출을 늘리는 업체가 많음.
 - 조사 업체는 월평균 약 80개 컨테이너를 출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당 약 24톤 기준 연간 약 2만 3천 톤 수준의 김치를 출하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생산된 김치의 한국 수출 비중은 사실상 100% 수준이며, 주요 공급 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임.

- 김치용 배추는 계절별 주산지를 달리하여 조달되며, 봄배추보다는 가을·겨울배추와 저장배추 중심으로 원료를 확보하는 구조임.
 - 청도 등 산동성 지역에서는 4~7월 봄배추와 10~11월 가을배추가 사용되며, 12~3월에는 동북산 및 호북성 겨울배추 저장 물량을 활용함.
 - 8~9월에는 평도 지역에 저장된 봄배추 저장 물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봄 하우스배추는 김치용 원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김치업체의 배추 조달은 도매시장 구매보다는 계약재배 및 산지 조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업체는 포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농가 또는 재배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농약 종류, 재배 방식 등 생산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
 - 계약은 대체로 파종 전에 이루어지며, 농가 이탈 방지와 품질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이 활용됨.
 - 계약재배 물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농가의 물량을 추가 조달하나, 이 경우 조달 단가가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출용 배추 및 김치는 대부분 산지에서 직접 조달되며, 일반 도매시장

에서 구매하는 형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중국산 김치 원료 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김치 가공량이 감소하고, 원료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 산동산 가을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 가공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작년 가을배추부터 겨울배추까지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원료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배추 생육이 부진할 경우 산지에서 일괄 수확하거나 품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김치업체의 원료 확보와 가공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중국산 김치 수입단가 상승은 원료 배추 가격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가격, 해상운임, 인증비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고춧가루 가격이 톤당 약 1,000위안 상승하면서, 김치 생산비가 톤당 약 150달러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미·이란 사태 등 국제 정세 영향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한 점도 수입단가 상승 요인으로 언급됨.
 - HACCP 등 인증비와 관리비도 업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나, 김치 생산 원가 산정 시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됨.
 - 4월 김치 수입단가는 톤당 약 680달러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톤당 6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김치업체는 한국 수출을 위해 HACCP 등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인증 비용과 관리비 부담이 중소형 업체에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유럽 수출용 인증은 2년에 1회 갱신이 필요한 반면, 한국 수출용 HACCP 인증은 매년 갱신이 필요함.
 - 초기 한국형 HACCP 인증 비용은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연간 약 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조사됨.
 - 대규모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나, 중소형 업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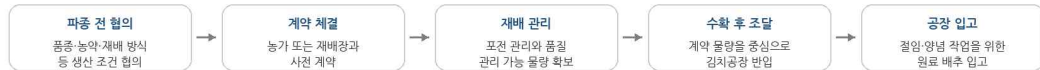
HACCP 외 추가 인증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고정비 부담이 큰 구조임.

- 일부 업체는 인증비 및 관리비 부담을 퇴세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환급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 김치 수출업체는 퇴세를 정부 보조금이 아닌 수출 관련 세금 환급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용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업체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히려 토지세와 수출 관련 세금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퇴세는 세무국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 성격으로, 수출 규모가 클수록 환급 규모도 커지는 구조임.
- 중국산 김치 가격은 한국 내 김치 가격보다는 중국 내 원료 조달비, 가공비, 인증비, 물류비 등 현지 생산비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에서 생산되는 김치 가격은 중국 내 생산·가공·물류·인증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
 - 한국산 김치 가격이나 국내 김치 시장 가격에 크게 좌우되기보다는, 중국 현지 비용 구조와 수출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
 - 판매 방식은 민간업체 직접 판매와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가 병행되며, 대기업에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에이전트를 통해 납품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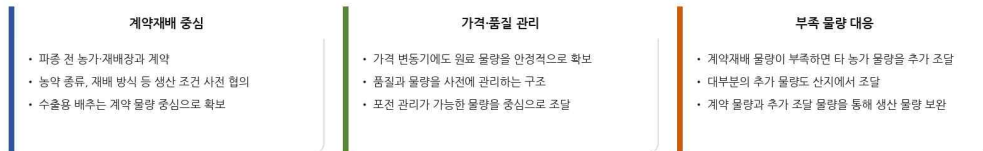
<중국 김치업체 배추 조달 방식>

중국 김치업체의 배추 조달 방식

1. 기본 조달 흐름



2. 조달 방식의 특징



3. 계절별 원료 배추 조달



<관련 사진>

현지 김치업체 전경



한국 수출용 김치 적재 공간



배추 세척 및 절임 단계



배추 양념 및 포장 단계



냉동과일 수출업체(Dragons Garden)

- 본 회사는 산둥성에 위치하고 있고 1999년에 설립된 중국-영국 합작 기업이며, 직원 수는 약 100명임. 다양한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냉동) 및 판매를 통합하는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6,000톤에 달함.
 - 자체 냉장 시설 외에도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랙커런트와 같은 베리류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위해 약 9만 평 토지를 임대하였음.
 - 본 업체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OFDC, ECOCERT, ISO9001, HACCP, BEC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았음.
- 한국으로의 딸기 수출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으로의 수출 계획은 따로 없으나 뉴질랜드로의 수출량이 점차 증가
- 가공용 딸기 품종은 기존 신선으로 재배하는 장희, 육보 등과는 다른 품종(미국)을 사용하고 있음. 가공용 딸기는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음.
 - 신선용으로 사용하는 딸기 품종은 章姬 (天寶)、恬查理、香野 (隋珠)가 있으며,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음. 중국 시설하우스는 한국처럼 수경재배 보다는 토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
 - 가공용 딸기 품종으로는 티엔차리(恬查理, Sweet Charlie, 미국산)、메이스산(美十三, Honeoye, 미국산)、CF1, 미바오(蜜寶, Mibao, 중국산)이며 대부분 경도 및 단수가 높고 색택이 가공에 최적화된 품종임.
 - 다만, 가공용 딸기 당도는 신선 품종에 비해 떨어짐. 실제로 냉동창고에서 꺼내 맛을 봤을 때 당도는 낮고 신맛이 높았음. 색택은 비교적 고르고 신선 딸기에 비해 진함. 가장 널리 쓰이는 품종은 Honeoye임.
- 노지 딸기는 대부분 산둥에서 봄철에 재배되고(4~6월)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됨.
 -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종비는 당해연도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편임. 전년에는 기상악화로 모종값이 크게 상승
 - 통상 산둥성에서는 2월에서 6월까지 1작기만 재배하고 있으며, 원활한

노지 재배를 위해 농약 및 영양제 점적 투입관을 사용하고 있었음.

○ 최근 한국으로의 냉동딸기 수출량이 12월부터 2월까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가공업체의 수요가 점차 늘어갈 것으로 판단됨.

- 가공용 딸기는 크기와 색택이 국내산보다 좋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공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겨울철에 수입량이 늘어날 전망
- 다만, 중국에서 PLS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 어떤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수 없음. 따라서 냉동딸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및 감시 체계가 필요함.

<중국 신선딸기 품종별 특성>

품종명	원산	숙기	경도	주요 특징
홍옌 (紅顏)	일본	조생	높음	전국 재배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광택 외관, 강한 향, 경도 우수.
장희 (章姬)	일본	조생	낮음	당도는 높게 형성되지만 물러지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운송에는 제한적임.
향야·수이주 (香野·隋珠)	일본	극조생	중간	대과형. 홍옌 대체 수요 증가세
묘향7호 (妙香7号)	중국	중조생	중간	홍옌과 恬查理 교배 국산 품종. 최근 부상하고 있음.
샤오바이 (小白)	중국	중생	중간	흰색 과육·연한 외피. 시각 차별화로 프리미엄 포지셔닝. 고가 틈새 선물용 시장.

<중국 가공딸기 품종별 특성>

품종명	원산	숙기	경도	주요 특징
美十三 (Honeye)	미국	중조생	높음	진홍색 유지. 해동 후 형태 안정. 해외 바이어 선호도 1위. IQF 홀베리·베이커리 펄링 최적. 산둥 수출 주력.
恬查理(Sweet Charlie)	미국	조생	높음	단수가 높고 균일한 생산 가능, 항병성 최강. 가공라인 효율 최고. 저가 B2B 원료 주력.
全明星 (전명성)	미국	중조생	높음	장거리 수송 강. 내서성 우수. 초기 수출 주력 품종. 현재 美十三 등에 밀려 보완적 활용.
蜜宝 (미바오)	중국	중생	중간	꿀향·풍미 차별화. 중국 내수 유제품·음료 원료. 수출보다 중국 국내 식품기업 OEM 원료 비중 높음.
홍옌 등외품 (紅顏)	일본	조생	높음	신선 등급 외 소과·변형과 → 고급 IQF 전환. 가공 전용보다 단가 프리미엄 형성.

설탕에 절인 딸기



냉동 딸기 슬라이스



냉동 딸기



냉동 딸기 큐브



저온창고



냉동 딸기



유기농 딸기



유기농 딸기 단면



기공용 딸기



가공용 노지 딸기밭



농약등 비료 투입 관



딸기 꽃

